

오수개 유엔기구 등재 기념식 남원시, '입체 주소' 도입 추진

임실군, 오수의견 설화 주인공 '오수개' UN FAO 품종 등재 기념행사 29일 개최

임실군이 오수의견 설화의 주인공인 오수개의 유엔식량농업기구인 UN FAO 품종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군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반려누리에 서 달에 물을 묻혀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살려낸 개로 알려진 오수개의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품종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FAO DAD-IS(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품종 등재와 자원주권(김승창 박사) △한국 고대견종과 오수개의 역사문화적 고찰(박승규 교수) △치유반려동물로서의 오수개 활용방안(김옥진 교수) △반려동물 콘텐츠를 활용한 세계화 전략(채수찬 교수) 등의 특강을 시작으로, 오후 5시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의 인증서 전달, 품종 등재 경과보고, 기념사, 등재 기념비 제막



임실군이 오수의견 설화의 주인공인 오수개의 유엔식량농업기구인 UN FAO 품종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민들에 의해 1995년부터 육종 연구가 시작된 오수개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받았다.

이러 지난 6월 30일 FAO DAD-IS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오수개 복원 사업을 30여 년 동안 주도해 온 오수개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재석 회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

릴 만큼 유명한 오수의견 설화의 주인공인 오수개가 세계적인 기구에 등재된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오수개를 시작으로 오수면에는 오수의견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누리지원센터, 세계명견랜드 조성사업, 김개인 생가지 재단장, 오수 팻추모공원, 팻용품 전용농공단지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수의견문화제도 올해로 39회째 이어지고 있다.

군은 2030년 세계반려동물산업엑스포를 오수의견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UN FAO의 등재는 오수개 천년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오수면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성지가 되고, 국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UN FAO의 등재는 오수개 천년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오수면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성지가 되고, 국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UN FAO의 등재는 오수개 천년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오수면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성지가 되고, 국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3차원 실내 공간 정보·입체도로 등 시민 안전 위해 적극 나서

남원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입체 주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체 주소는 지상도로에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 통로까지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건물 중심의 주소가 아닌 도로변 공터와 산악에서도 위치 찾기가 가능한 주소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조정밀수치지도도 구축 △산악지역의 국가지점번호관 설치 △농로·산책로의 도로명 △다중이용시설물의 사물주소 △다기구·다세대주택의 동·층·호별 상세 주소 부여가 있다.

특히 공공·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차원으로 입체화된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도 길을 쉽게 찾고,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과 공간정보팀장은 "앞으로도 3차원 실내 공간 정보와 입체도로 등 미래형 주소 체계를 활용,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4 순창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순창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순창의 다양한 맛과 음식, 순창 웰니스, 순창 블레저(비즈니스+레저), 순창의 길, 가성비나 럭셔리 관광 등 순창 관광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공모전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순창군 관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팀 단위의 참가도 허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ff.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2024stff@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로 평가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예정이다.

시상은 총 6명(팀)이며, 대상 1명(팀)에게는 100만원, 최우수상 2명(팀)에게는 각 50만원, 우수상 3명(팀)에게는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결과는 9월 27일에 발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최

주요 업무추진 실적·2025년도 신규사업 등 보고·일반안건 심사

남원시의회(의장 김병태(사진))가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신규사업 등을 보고 받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남원시 김병태 미술상 운영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의 조례안 28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4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6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

고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 채택, 남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 결의안은 경찰청,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병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으로 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남원시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남원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37주기 추모식

남원시는 지난 22일 11시, 사매면 소재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묘지에서 열사 37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남원시가 지원하고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기념사업회(회장 이성재)가 주관한 추모식은 분향과 묵념,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래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석규 열사의 유가족, 김한수 시의회 부의장, 김재연 자치행정

국장, 시민·노동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석규 열사는 1987년 8월 22일 노동자 대투쟁 당시 평화거리 투쟁 중 최후탄을 가슴에 맞고 사망, 만일동 묘역 안장을 결정했으나 경찰에 의해 장례 차량이 탈취되어 남원시 사매면 현묘역에 안장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역사의 아픔이 되



풀이 되지 않도록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추석 전 지급

순창군이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은 추석 명절 이전에 구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만 리터까지의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며, 유종별 가격상승분에 따라 리터당 22원에서 15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순창군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이 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방식인 내장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는 군청 축산방역팀(063-650-56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며,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물관리 계획 수립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심의 대상 물관리 계획 실무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법률에 따른 개별적 수립으로 상하위 계획 간 연계가 부족했던 기존 지자체 물관리 계획을 개선하고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를 목적으로 2023년 11월 수립된 유역계획에 대하여 지자체가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계획(14종)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검토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정비계획 등 임실군 내 물관리 계획 실무자 약 10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지원 전문가인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통해 심의 절차·시기 및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